

동양실리콘 익산공장 “직장폐쇄”

노조 파업 장기화에 직원간 반목 심화 ... 1월부터 11차례 교섭

공업용 실리콘(Silicone)을 생산하는 동양실리콘 익산공장이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자 3월19일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동양실리콘 익산공장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낸 직장폐쇄신고서에서 “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3월6일부터 파업과 태업을 벌여 경영 손실은 물론 직원들의 반목이 심화하고 있어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직장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무기한 직장을 폐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조측은 “100여가지의 요구사항 중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20개만 받아들여졌다”면서 “사측이 조합원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양실리콘 익산공장 노사는 1월부터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노조의 핵심요구사항인 노조 전임자 인정 및 근무 중 조합활동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동양실리콘과 함께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전북지부 소속인 한솔홈테크 익산공장도 3월14일 비슷한 이유로 직장을 폐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19>